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박람회 대성황

지방정부협의회가입 59개 시·군·구 참가 자리 빛내 회원도시간 다양한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서로 공유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13일 군산세민극장본점센터(CSCC)에서 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제2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주관했으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59개 시·군·구가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임시총회, 개막식, 컨퍼런스, 박람회로 운영된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회원 도시 간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선도적 추진에 따른 어려움과 보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시총회에서는 협의회 규약 개정을 통해 부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였고, 개막식에는 군산시를 대표하는 어린이 공연팀인 당북초등학교 예술꽃 국악 공연팀과 군산부설초등학교 푸른소리 중창단이 참여해 그 의미를



아동 친화 정책에 대한 홍보와 체험, 교육 부스를 운영한 박람회 행사에는 1,500여명의 아동과 일반인들이 참여해 아동친화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아이들에게 행복씨앗을 심어주자'라는 주제로 조벽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EBS 다큐 '파더 쇼크 제작자인 김광호 PD와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인 신수경 변호사의 패널 발표에 이어 김임준 군산시장의 '군산시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에 대한 지자체 사례발표 순서로 진행됐으며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동 친화 정책에 대한 홍보와 체험, 교육 부스를 운영한 박람회 행사

에는 1,500여명의 아동과 일반인들이 참여해 아동친화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아동과 지역사회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 아동학대 예방, 아동인권 보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아동과 지역사회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현장간부회의 개최, 시간여행축제 추진 점검

군산시는 13일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2018 군산시간여행축제 최종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은 이날 회의에서 시간여행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 행사장 일대를 돌아보며 군산의 대표축제이며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시간여행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졌다.

이승복 부시장은 "나들이 계절을 맞아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멋진 추억을 담아가고 무더위와 경기침체로 지친 시민들은 여유를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축제 기간 중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변 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행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옛 추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막이 오르게 될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 대표축제로, 올해는 시민들의 의견을 축제 기획 단계부터 최대한 반영하는 등 이른바 '시민참여형 축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다양한 체험과 미션 수행 시 방문객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할 '시간여행화페'는 축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이색체험 기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등의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의회, 관내 기업들과 지역경제 위기극복 노력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 의장단은 지난 12일 신단공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김규선) 13명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과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모색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간담회에 앞서 김경구 의장은 군산조선소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기업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영자협의회 관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성과 특수산학 인프라 구축, 상품차 차종개발 및 특장차 기업유치, 산업위aggi 지역 기업 지원제도 보강, 현대건설기계와 건설장비 대기업 유치 등을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군산산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 익산사랑운동 추진협의회 전국체전 앞두고 익산사랑운동 전개

환경정화 활동·거리 캠페인, 제작·홍보

익산시와 익산사랑운동 추진협의회(조흥찬 회장)는 2018 전국(장애인)체전을 한 달 앞두고 전국체전 성공개회를 위한 익산사랑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그동안 익산시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익산사랑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13일에도 익산사랑추진협의회원과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 약 150여 명이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전지랜드 사거리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거리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이 만연해 익산사랑운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익산의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익산시와 익산사랑운동 추

진협의회는 그동안 거리나 인구밀집지역에서 주 1회 실시하던 홍보활동을 집중홍보기간인 10월 초부터는 격일로 추진하여 전국체전 범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가두행진, 거리변 상가 방문홍보 등을 통해 전국체전 기간 중 익산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할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익산사랑운동 캠페인 동영상 제작, 홍보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익산사랑운동을 알리고, 환경정화 활동, 불법 홍보물 제거 등 3대 중점과제 및 9대 실천사항 실현을 위한 순수수범 운동을 펼쳐 시민의식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내년 신규시책 부시장 주재 발굴 보고서

익산시가 13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2019년 시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박철웅 익산시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굴된 내년 신규시책은 총 48개 사업으로 우리시 시정 방향과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발굴된 주요 신규시책으로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철목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주요리조트 청년실업 시범사업, 남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남부권도서관 건립 사업, 젊은층의 귀농 유도를 위한 △ICT 결합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주권환경 개선을 위한 △승리골 인화도 시재생 뉴딜사업 등이다.

박철웅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발굴된 신규시책들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보완해주시기 바라고,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면 꼭 필요한 사전 절차들은 바로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보건소, 메르스 대응 방역대책반 24시간 가동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군산시보건소소장 전철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메르스 대응 방역대책반을 가동했다.

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 국내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개 팀의 메르스 대응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보건소 전직원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했다.

현재까지 군산시 거주자 중 메르스 확진자의 밀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에 참가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국내 근로자 중 1명이 지난 10일 의심환자로 신고가 접수돼 즉시 격리된 후 격벽 구급차량으로 이송 전북대학병원 응급병상

에 입원조치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확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격리 해제된 후 귀가 조치한 바 있다.

시 보건소는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는 중동지역 방문자 중 의심환자 발생신고에 대비해 재난안전부서와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산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 2병상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동군산병원 보건소를 선별진료소로 지정했으며 격리환자 수송을 위한 격벽 구급차량은 관내 의료기관을 포함한 17개소 26대로 전 기간 보유하여 메르스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메르스의 감염경로는 낙타접촉, 낙타우 섭취 또는 메르스 확진자의 비·침·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감



염증상으로는 주로 발열(38°C 이상)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 가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중동국가를 다녀온 뒤 2주 이내에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 가쁨,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군산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

익산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는 13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2018 익산시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개최했다.

이는 국내 외식업체 바이어를 식재

료 산지로 초청해 식재료 생산업체와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에는 안양 삼바버를 우수외식업지구와 한

국의식품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원 등 50여 명이 구매자로 참여하였고, 익산타바초합동농협, 익산농산물가공유통사업단 및 식재료 생산업체에서 50여 품목에 대하여 상담 및 구매계약을 했다. /익산=우병희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